

보사부

보사위의 「단골매」인 의료보험제도의 부차용 및 폐하와 생수시판문제가 중점 거론됐다.

李詒銘의원(平氏)은 90년 현재 보험체납가구는 11만7천8백여가구에 체납보험료가 1백44억여원에 이르렀고 있다. 고지정하고 「보험료체납」가 구중 농어촌지역이 무려 10만7천여가구로 이들에 대한 「차입금」이 몰아치고 있다. 「차입금」이 해체 제치를 요구했다.

黃性均의원(民自)도 조기 도입된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의보수가의 현실화△진료비 심사기구의 독립화를 역설했고 鄭基榮의원(平氏)은 보험료가 대폭인상된 농어촌지역의 의료보험료를 재조정을 주장했다.

鄭의원은 또 14개의 생수제조업자업체중 12개업체가 국내시판용을 계속하고 있다. 「폐하」를 파졌다.

金漢圭의원(民自)은 「보사부가 수입식품의 제조업자를 표시를 삭제한 것은 對美통상압력에 따른 임시방편적인 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거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하고 "연내 이를 양성화시키기 위해 허가 시설 및 수질 기준을 연구 검토중에 있다"고 해명.

김 장관은 또 농어촌 지역 등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적자 재정 개선책과 관련, "약4백93억원에 이르는 지역의보조합의 적자는 인건비 상승 및 국고지원의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하고 "이를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의료수가를 인상, 적절히 보전하겠다"고 답변. 11.28. 민중.

보사위는 27일 과천 정부제2종합청사에서 보사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으나 별다른 쟁점이 없는 탓인지 경로당 운영비, 화장품 유통 구조 문제 등에서부터 의료보험 문제에 이르기까지 '백화점식 나열'에 그친 느낌.

보사위의 보건사회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수 장관은 평민당의 정기영 의원의 생수 판매 무더기 허가 관련 질문에 대해 "현재 내 국민에게 판매가 금지돼 있는 생수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단속하라고 했으나 너무 많이 생

보사위

보사부본부에 대한 첫날 감사를 벌인 보사위는 27일 「단골매」인 의료보험제도의 부차용 및 폐하와 생수시판문제가 중점 거론됐다.

李詒銘의원(平氏)은 90년 현재 보험체납가구는 11만7천8백여가구에 체납보험료가 1백44억여원에 이르렀고 있다. 고지정하고 「보험료체납」가 구중 농어촌지역이 무려 10만7천여가구로 이들에 대한 「차입금」이 몰아치고 있다. 「차입금」이 해체 제치를 요구했다.

黃性均의원(民自)도 조기 도입된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의보수가의 현실화△진료비 심사기구의 독립화를 역설했고 鄭基榮의원(平氏)은 보험료가 대폭인상된 농어촌지역의 의료보험료를 재조정을 주장했다.

보사위

27일 보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鄭基榮의원(平氏)은 생수문제와 관련, 「기준의 14개 생수업체가 법률을 어기고 계속 생수를 판매하고 있는데 보사부는 앞으로 법을 엄격히 집행할 것인지, 지금처럼 묵인 방조할 것인지」 따지라며 「생수제조 허가를 받기 어렵지 않았지만 대관령공장, 천안공장 등 5개 업체가 탄수제조허가를 받아 생수를 판매하고 있는데 작년 한 건도 없던 탄수제조 허가를 해 무더기로 내준 것 위와 배경을 밝히라」고 요구.

李詒銘의원(平氏)은 「아산 제약에서 지난 3, 4월에 출고된 4만4천여병의 간염시약이 불량품으로 밝혀지는 등 시중에 불량간염시약이 많이 나돌아 간염검사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사부의 대책을 촉구.

골프장 기준 왜 낮추었나

△환경처 2개 환경처 감사에서 李詒銘의원(平氏)은 올해 3월 17일 개정된 골프장관리규정을 지난해 11월 14일 강화된 골프장 환경영향평가기준보다 허가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했다"고 지적하고 「출입국로가 골프장화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李의원은 또 군산 TDI화 학공장 건설문제와 관련, 환경처가 88년 10월 군산시에 TDI공정설비를 재검토하도록 회신해놓고 88년 7월 환경영향평가 회신에서는 「지역주민 불안

해소방안 및 주민유구사항에 대한 대책 필요」로 의견을 바 꾸었다"며 「제2의 安眠藥사태가 우려되는 군산 TDI공장에 대한 일주제검토방향을 입 주방침으로 선회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환경처

골프장 건설과 맹독성 농약 사용에 따른 환경파괴 환경오염, 각종 폐기물의 처리문제 등이 집중 추궁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감안, 환경영향평가의 입원화를 강조했다.

李詒銘의원(平氏)은 「올해 3월 17일 개정된 골프장관리규정으로 골프장 환경영향평가가 완화된 이후 7개월동안 무려 35개 골프장이 인가됐다」고 지적하고 「20여개 이상의 골프장이 사 용금지된 다코넬 캠프 다코폴 등의 맹독성 농약을 사용해 환경오염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 위반 및 농약 사용에 대한 환경처의 대책을 물었다.

한편 이날 宋斗顯의원(平氏)은 온산사업소의 「6가크롬」 4백11t 불법매립 주장을 둘러싸고 한동안 논란이 계속.

宋의원원은 사업소측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올 1월부터 8월까지 반입된 폐기물 7백47t중 3백36t만 고형화 처리된 채 나머지 4백11t은 불법매립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처측은 「오염물질 함유농도를 시험 분석하는 단계에서 나머지 4백11t은 매립지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宋의원측이 지난 9월 21일 직접 현장에 확인했을 때 그간은 폐기물 매립지에 없었다"며 「현장사진을 제시하자 환경처측은 「매립장에 2백67t, 저장조에 1백44t이 보관중이었다」고 보고받았다」는 답변을 받고는 「폐기물 매립지 사진을 하지도 않겠다」는 호만 가증.

茂朱리조트도 추궁

○ 28일 오전 李北道 청상환실에서 열린 국회 내부회의 李北道에 대한 감사에서 鄭均植의원(平氏)은 주창마을개발이 茂朱郡雪川面에 건설 중인 茂朱리조트와 관련, 「군유림과 논을 삼밭을 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착공한 것은 정경유착의 특별한 예이며 6공비리의 대표적 사례」라고 질타.

또 崔洛道의원(平氏)은 주창마을지역의 4km 밖에 세워질 독가스 포스젠이 생성되는 TDI 1.5km 이내에 건립 주민반발이 거세게 일는데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全州】

11.28. 중앙.